

# 단종애사(端宗哀史)의 후광효과<sup>1)</sup>를 적용한 영월팔경의 스토리텔링 전략

노재현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 A Study on Storytelling of Yeongweal-palkyung Applied by Halo Effect of King Danjong' Sorrowful Story

Rho, Jae-Hy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 ABSTRACT

With the awareness that Sinyeongwol Sipgyeong(ten scenic spots in Yeongwol) were designed too hastily and only for PR purposes after the change in the tourism environment, this paper indicates that most tourism and culture sources in Yeongwol are related to King Danjong, the six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This study proposes a 'Storytelling Plan' for the landscape content called 'Cultural Landscapes - Yeongwol Palgyeong(eight scenic spots in Yeongwol)' after reviewing types and content of Yeongwol Palgyeong through the halo effect of the well-known sad history of King Danjong and the cultural value of Yeongwol.

The significance of the unity of the historic site and neighboring landscape is focused on by investigating the anaphoric relations between cultural landscape texts('Yeongwol Palgyeong') and historic content(the sad history of King Danjong). For this, the cultural landscape of Yeongwol has been framed and layered to make spatial texts. To emphasize the 'Telling' as well as the 'Story,' interesting episodes have been reviewed to discover a motive. To diversify the 'Telling' methods, absorptive landscape factors have been classified as 'Place,' 'Object' and 'Visual Point.' In addition the storytelling of Yeongwol Palgyeong was exa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story and background of 'Yeongwol Palgyeong - Sad Story of King Danjong' and the interaction of a variety of cultural content by suggesting micro-content such as infotainment and edutainment as absorptive landscape factors.

In order to make the storytelling plan available in practice as an alternative plan for Yeongwol Tourism, a visual point should be properly set to make the landscape look sufficiently dynamic. In addition, real landscape routes and narration scenarios should be prepared as well. Professional landscape interpreters who are well informed of the natural features of Yeongwol and the history of King Danjong should be brought into the project, and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y-based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Cultural Landscape, Cultural Contents, Landscape Theme, Cultural Tourism*

**Corresponding author:** Jae-Hyun Rh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Samnye-eup Wanju-gun, Jeollabuk-do 565-701, Korea, Tel.: +82-63-290-1494, E-mail: orchid@woosuk.ac.kr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단지 지명도 부족과 관광 여건의 변화에 따른 홍보 전략용으로 급조, 지정된 신영월십경 지정에 따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영월의 관광 문화자원의 대부분이 단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익히 알려진 '단종에 대한 슬픈 역사'와 유배지 영월의 문화자원이 갖는 지명도 등의 후광효과를 통해 미개발 관광콘텐츠 영월팔경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여 「문화경관 영월팔경」이라는 경관콘텐츠의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월팔경이라는 문화경관 텍스트와 <단종애사>라는 역사콘텐츠의 조응적 관계성 모색을 통한 장소와 역사적 현장 경관의 동일성을 통한 의미와 이야기 전달과정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영월의 자연문화경관을 공간적 텍스트화하기 위한 틀 짜기(framing)와 켜 짜기(layering)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스토리뿐만 아니라 텔링이 텍스트 향유의 지배적 요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에피소드 등의 이야기거리를 탐색하고 경관 주제의 모티브로 발굴하고자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텍스트의 구조 안에서 재맥락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몰입 경관요소를 장소, 대상 그리고 시점으로 구분하여 현장화 하였다. 또한, 경관 몰입요소를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와 에듀테인먼트(Eduainment) 요소 등의 미시 콘텐츠를 제시함으로써 '영월팔경-단종애사'의 이야기성, 현장 장소성 그리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상호관계성을 고려한 영월팔경 스토리텔링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스토리텔링 방안이 실제 영월 관광의 대안이자 전략으로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경관 연출의 리얼리티를 역동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시점의 설정과 경관 루트 연계방안 그리고 내레이션 시나리오가 갖추어져야 하며, 영월의 자연 및 풍수적 관점에서 형성된 한국 인식과 단종 관련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경관해설가의 양성이 필요하며 인터넷과 디지털 상용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문화경관, 문화콘텐츠, 경관주제, 문화관광, 에듀테인먼트

## 1. 서론

지역경관에 대한 연구는 지방 이해를 위한 단초일 뿐 아니라 지역 문화 제 측면들을 연쇄적이고 종합적으로 엮어 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임을 상기시켜 준다(전중환, 2006). 지역 경쟁력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관의 활용은 자연스런 현상이며 인터넷과 디지털의 상용화 등에 힘입어 관광콘텐츠 다변화의 대안으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부각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관광자원이나 관광지 관련 이야기 소재를 발굴하거나 의미를 찾아 관광지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작업이며(전명숙, 2007), 지역의 이미지니어링(imagineering)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이기도 하다. 본 연구 주제이자 소재인 영월팔경의 무대인 강원도 영월은 옛 부터 평창, 정선과 함께 어딜 가든 태산준령으로 둘러싸인 산다삼읍(山多三邑)의 고장이며, 조선 오백년 역사에서 가장 슬픈 단종(端宗)의 한을 품에 묻고 있는 고장이기도 하다. 인근 단양지역의 단양팔경이 지역의 고유 경관상을 대변하고 있듯이 영월팔경 또한, 지명도는 낮지만, 산수의 자연스러움이 어우러진 영월 지역 특유의 경관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이창식, 2002). 영월팔경은 팔경시와 팔경화 등의 장르 확산의 연속선상에서 한시나 가사체로 구전되고 있으며 목포의 목포팔경가, 진도의 옥주팔경가와 같이 단가체 형식

의 영월팔경가가 전해져 오고 있다(김병하 등,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영월군 군정심위위원회는 '관광자원의 호감도와 여건 변화에 맞는 문화관광자원의 선정'이라는 명목 아래 지정된 신영월10경<sup>2)</sup>을 중점 투자 관리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화 할 방침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전래되는 영월팔경에 대한 향토사적 탐구나 의의에 대한 재조명작업은 아예 없이 신영월팔경(십경) 선정에 몰두해 왔다(강원도민일보, 2002)는 비난이 오래전부터 일고 있다. 영월의 관광문화는 대부분 단종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고, 조선 중기 구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영월팔경가 등 또한, <단종애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단종은 부정한 정권에 항거하는 민중의 정신적 지주로서, 단종 사후 백성들은 단종의 신격화를 도모하였고 처음엔 성황신으로 이후 태백산 산신으로 영월의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다(김강산, 2006). 표용태(2006)는 영월지역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방안을 제시하면서 장릉과 청령포 역사탐방자원에 대한 이야기(story) 거리 제공과 이미지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월팔경을 소재나 주제로 활용하여 관광 및 문화경관 콘텐츠로 발굴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을 뿐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위한 소재 또는 주제로서 팔경 등 지역의 문화경관을 활용한 예는 타 지역에서도 그 사례가 전무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익히 알려진 <단종애사>의 후광효과를 통해 미개발 문화경관 영월팔경을 관광자원으로 콘텐츠화 하기 위한 경관 스토리텔링 전략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 II. 관련 연구동향

### 1. 팔경 등 경관의 문화콘텐츠화

국내에서 지역경관의 집경(集景)을 통한 관광 콘텐츠화의 시도는 오래 전 부터 있어 왔다. 1930년 경성방송국에서 전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대한팔경<sup>3)</sup>을 추청 받고 이를 대중가요로 전환하였다. 1996년 대전광역시에서는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대전팔경을 선정한 바 있고 1997년 강릉우체국에서는 강릉8경 선정 행사를 통해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한 바 있다. 안장리(2005)는 지역 콘텐츠 개발 모색의 일환으로 경북 상주의 진주 정씨 정경세 가문의 「우복(愚伏)20경」의 경관재구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집경의 차원을 넘어 정용수(2006)는 서거정의 영남루10경의 주대상인 영남루와 축석루 그리고 함벽루 등 영남 3루 누정시문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제영 '시문의 토포스와 전시', 심경 조망대 설치, 심경 애니메이션 제작 등의 문화적 향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글러브인터랙티브(주)에서는 전통팔경의 디지털화 및 원형 소재 개발을 통해 다양한 매체의 팔경 리소스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김종하와 배현미(2006)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현대팔경은 인터넷 안내-홍보책자-도로안내판-관광코스-상품 제작 등의 순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관광학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상호 대화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관광지를 둘러싼 스토리를 중심으로 관광지와 관광객들이 상호작용으로 만들어 가는 의미체계로서 인식(전명숙, 2007)하는 경향은 알려져 있으나,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한 경관의 스토리텔링화 작업은 알려져 있지 않다.

### 2. 스토리텔링과 문화유산

문학용어에서 비롯된 스토리텔링<sup>4)</sup>은 현대에 와서는 마케팅의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즉, 수많은 정보는 스토리라기보다는 데이터(data)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축적된 정보 즉, 데이터를 주제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이야기로 꾸미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이야기 즉,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스토리텔링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소재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상품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OSMU(One Source Multi Use)는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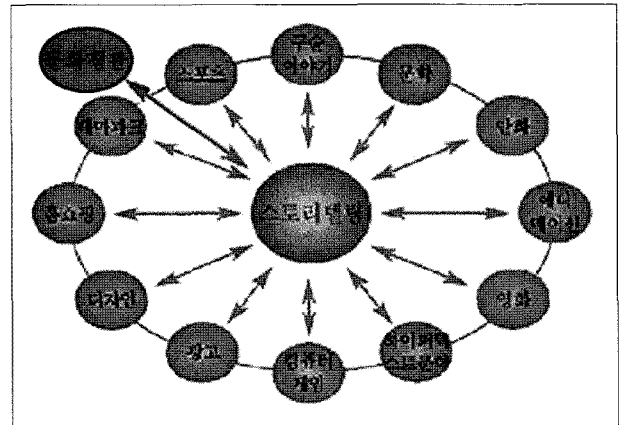


그림 1. 스토리텔링의 OSMU 방식  
자료: 최혜실, 2006:105 재구성

콘텐츠의 호환성과 연계성을 설명하는 핵심어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경관 또한, 스토리텔링 구성의 중요한 콘텐츠이자 다중 이용소스로 인식하였다.

이윤선(2005)은 진도아리랑의 연행주제라 할 수 있는 진도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하나의 민요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적 함수를 들여다 보고자 하였다. 이때 진도아리랑이 설화와 노래로 '텔링'되는 것은 진도내 다수의 스토리텔러들이 하이퍼텍스트적 소통을 통해 진도아리랑이라고 하는 거대 담론의 문화 동일성(CI: Culture Identity)을 구축하는 문화마케팅 과정으로 보았다. 전명숙(2007)은 한류 관광상품, 축제와 이벤트, 주제공원 그리고 문화유산 관광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의 도입 가능성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으며, 오경환(2002)은 소재원을 사례로 조경공간의 이미지형성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최혜실(2004)은 이야기 구조가 매체의 특성에 따라 변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황순원의 「소나기」를 토대로 한 「소나기마을」과 충남 홍성군에 세워질 예정인 한용운 문학 작품을 토대로 한 「만해마을」을 대상으로 텍스트의 스토리텔링인 문학작품을 테마파크란 공간구조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구명하였다. 또한, 유동환(2006)은 전통문화 소재 콘텐츠 개발 붐을 소개하면서 불교문화유산 소재의 특성 파악을 전제로 한 단계별 개발 전략으로 불교문화유산 기반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한, 2006년에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주도 하에 '조선시대 유배문화 콘텐츠'의 일환으로 「단종」의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 III. 연구대상 및 분석틀의 설정

### 1. 단종애사(端宗哀史)와 영월팔경

#### 1) 단종애사

단종(1441~1457)은 영월로 귀양 와서 불행하게 요절한 조

선조 6대 임금으로 그는 세종의 손자이며 문종의 아들로서 왕세손(8세)-왕세자(10세)-왕(12세)- 양위(15세)-노산군으로 강등(16세)-영월로 유배-서인으로 강등-죽음(17세) 등 숨 가쁜 역정을 겪고서 억울하게 죽은 한(恨)의 인물로 본 연구에서는 「유배지 영월에서의 단종의 슬픈 역사」를 <단종애사>로 지칭하고자 한다.

한편, 단종과 관련된 소설로 김수민의 「내성지」, 근대 역사소설인 이광수의 「단종애사」, 김동인의 「대수양」과 유치진의 「사육신」에 이르는 문학작품의 작품론적, 작가론적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영월문화원을 중심으로 단종 관련 역사, 문화, 학술 분야의 연구 성과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민속학적으로 단종과 민속 및 신앙, 단종과 단종문화(단종제), 역사와 구비전승 등의 다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정재, 2003).

이광수는 장편 역사소설 <단종애사>를 통해 '고명', '실국', '충의', '혈루'의 기승전결 4개의 단락으로 구성, 두 개의 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단종을 중심으로 한 축은 비애와 슬픔과 애련으로 하강곡선을 그리며 단종의 일생을 비운의 탄생(고명편), 상실(여름), 조락(가을), 소멸(겨울)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한승욱, 2001).

2) 영월팔경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자 소재인 영월팔경은 계족산의 안개(稽山宿霧), 금강정의 가을달(錦江秋月), 금봉연의 돛단배(鳳沼歸帆), 보덕사의 종소리(報德暮鐘), 청령포의 두견새(冷浦杜鵑), 봉래산의 구름(蓬萊彩雲), 태화산의 단풍(泰華丹楓) 그리고 검각산의 푸른 솔(劍閣蒼松) 등 영월의 전래 문화경관 여덟을 일컫는데 '영월팔경'을 노래한 단가체 형식의 민요<sup>5)</sup>로도 전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원천 소스 검토를 위한 기본 텍스트 중 영월팔경과 관련한 유적과 장소에 대한 자료는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자료와 영월문화원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2. 분석의 기본시각

박기수(2007)는 스토리텔링 원천 소스 개발, 콘텐츠 스토리텔링 전환(adaptation) 전략, 콘텐츠 스토리텔링 전략 그리고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 리터러시(literacy)로 나누어 상호 유기적 관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스토리텔링 원천 소스 개발, 콘텐츠 스토리텔링 전환 전략, 콘텐츠 스토리텔링 전략을 생산 중심의 과정으로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 리터러시를 향유 중심의 과정으로 구분하고 양질의 스토리텔링을 구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생산자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기본 텍스트 영월팔경은 영월 문화경관의 원천이지만 그 소스는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한편, 영월팔경의 경우, 대중성을 획득한 콘텐츠로의 확장 전략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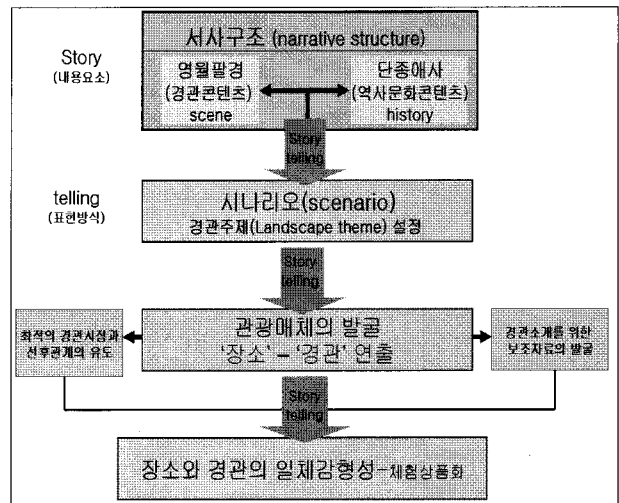


그림 2. 영월팔경 스토리텔링의 전개 순서

상된다. 이러한 논거는 영월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영월십경의 모색 과정에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리터러시는 문화 콘텐츠 영월팔경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내재적 문법, 현실과의 상관방법, 콘텐츠로서의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통합적 관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관 콘텐츠 영월팔경과 역사문화 콘텐츠 <단종애사>의 서사구조상의 공통 모티프 분석을 통해 주제경관 등을 설정하는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이후 경관 주제 체험의 최적 시점과 경관 관련 파생 콘텐츠를 제시하는 등 일련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제시함(그림 2 참조)으로써 「장소와 경관의 일체감 형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텍스트화를 위한 분석틀(Framework)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공간적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은 시간적 체험에 의해 '물리적 경관 프레임'이 '의식의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완결되며 그 중간 고리가 텍스트화이다. 즉, 영월팔경과 <단종애사>의 이야기라는 컨텍스트(context)에서 텍스트를 떼어내는 틀 짜기(framing)와 그 연출이라는 텍스트화를 통하여 <단종애사>는 영월팔경이라는 스토리로 재탄생하게 되며, 단순한 '영월의 경관' 또는 '단종 유배지의 역사문화'가 아닌 '체험된 장소로서의 영월팔경'이 된다. 이때 경관 주제의 도출과정이 틀 짜기가 되며, <단종애사>의 전개흐름에 맞추어 시점 및 장소를 켜 짜기(layering)하고 경관의 시퀀스(sequence)를 유도하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전개할 분석 틀(framework)로 표 1과 같이 박기수(2007)의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 접근법에 의한 전략별 연구내용, 도출목표 그리고 세부전략 및 강구방법을 축으로 하는 연구의 진행 도구를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진행을 위한 분석 틀

분석축	연구내용	도출 목표	세부전략 및 강구방법
콘텐츠 원천 소스 개발	영월팔경의 이야기거리 (에피소드) 발굴	영월팔경 형식분석	
		영월팔경 의미분석	
		<단종애사>의 줄거리 분석	영월팔경-<단종애사>
콘텐츠 스토리텔링 전환	스토리텔링의 목표 설정	전래문화경관 보존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동일감 강화 신영월십경과의 차별화	-관련 경관요소의 추출 -장소성의 부각 -역사적 실체로의 경관이미 조명
스토리텔링 전략	경관 테마 연출	영월팔경 경관주제의 설정	-각 경별 테마(Theme) 설정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 리터러시(literacy)	관광 체험계획	관련 문화 콘텐츠 연계 방안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에듀테인먼트(Eduainment)	-주경관내용 -팔경관광 트레일 설정 -관련 홍보 및 전시자료 -축제 이벤트와의 연계성

표 2. 영월팔경의 경관상과 구조

영월팔경	경관내용	시간축		대상(장)	비고
		계절	시간		
계산숙무(稽山宿霧)	금강산 봉우리 같은 계족산이 안개 속에 솟아 보이는 아침 경치	춘	주간	계족산	장릉의 안산
금강추월(錦江秋月)	금강강 언덕 위의 금강정에 한가위의 밝은 달빛이 비치는 밤의 풍경	추	야간	금강정	동강
봉소귀범(鳳沼歸帆)	서울 왕래 뱃길에서 돌아오는 돛단배가 주변에 어울리는 강상의 경치	하	저녁	금봉연	동·서강 합수처
보덕모종(報德暮鐘)	사찰 보덕사에서 초야에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의 저녁 운치	동	저녁	보덕사	능침사찰
랭포두견(冷浦杜鵑)	어린 임금 단종의 비극 서린 고독한 유배지 청령포에 슬피 우는 두견새	춘	저녁	청령포	단종 유배지
봉래채운(蓬萊彩雲)	영월의 주산이며 의젓하고 장한 봉래산에서 피어나는 구름	하	주간	봉래산	영월의 청룡(주산)
태화단풍(泰華丹楓)	영월의 노적봉 태화산의 옹혼한 가을 단풍	추	주간	태화산	영월읍의 안산
검각창송(劍閣蒼松)	깎아 세운 듯한 검각치(속칭 각한치)에 쌓인 겨울눈	동	주간	검각치	영월의 관문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원천 소스(source)의 검토

경관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탐구 자체가 생산적인 작업이 되기 위해서 거시적으로는 역사적 관점에서 단종 관련 역사의 종합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미시적으로는 영월팔경의 경관 특성을 전제로 한 전략적 차원에서 각 경의 세분화와 장소 배치의 변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콘텐츠 구축을 위해서는 당대 경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관 향유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향유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이는 경관 향유 양상의 재구성을 위한 기본 요소이며 영월팔경 각 경물의 내용 파악을 통한 문화 동일성에 호응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월팔경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춘하추동 계절별로 각 2개 경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주간(4개 경), 저녁(3개 경) 그리고 야간(1개 경)으로, 영월에서 조망되는 산수

경물과 단종의 유배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72년 영월 고지도상에 팔경의 주 대상을 포치시켜 본 결과, 읍내의 관풍헌과 자규루 등이 소재한 동헌과 읍치 좌우를 흐르는 동강과 서강을 중심으로 대표적 지모요소인 봉래산, 계족산, 태화산, 검각산 등의 산악경관과 금봉연, 청령포, 금강정 등의 하천경관이 단종의 무덤인 장릉과 조포수호사찰 보덕사를 위요하듯 나열된 포치 특성이 발견된다. 또한, 동강 상류부의 절경인 명승 제14호 어라연은 사약을 받고 죽은 뒤 단종의 혼령이 신선이 되고자 한 전설이 어려 있는 곳으로서 이와 같은 팔경 포치는 물론 고지도상의 표현 특성을 통해 영월팔경이 단종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 2.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시적 화자의 동선 즉, 움직임 및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한 이해는 탐방객 동선을 모색하고 의미 내용 연계를 통한 스토리텔링



그림 3. 1872년 영월지도로 본 영월팔경 주대상

의 객관적 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영월에서의 단종의 이거(移居)와 행로 및 관련 장소를 사건 전개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월로의 유배길

단종이 영월로 들어서면서 넘은 고개로 봉각산(鋒閣山)이라고도 하는 검각산(劍閣山, 505.3m)으로 제천에서 영월 땅으로 들 때 관문 구실을 하며(표 3 참조), 서강 남쪽에 남북으로 잇대어 나간 산봉우리가 칼과 창을 곧추 세운 듯 한데서 유래된 지명이다(그림 7의 1 참조). 소뿔에 땀이 날 정도로 험하다는 검각산의 각한치(角汗峙)는 <대동여지도>에도 표기되어 있는

큰 길로 영월로 유배지가 정해진 단종으로서 이 고개야말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회환과 비운의 고개였으며, 지리적 분수령이자 '되돌아 갈수 없는 경계'인 상징성을 보인다.

2) 두견(杜鵑)새 우는 청령포와 금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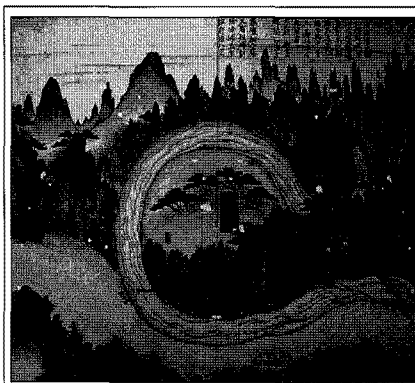
남면 광천리에 있는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는 널찍한 백사장을 앞으로 두르고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장관을 이룬 절경으로 동, 남, 북이 각각 서강의 물길로 가로 막히고 서쪽으로 툽날 같은 산봉우리의 기세로 험한 암벽이 둘러쳐져 있다(그림 4a 참조). 내부 담장 한 칸의 단묘유지비 앞면에는 '단묘재본부시유지(端廟在本府時遺址)' 즉, '단종이 영월부에 머물렀던 터'임을 알리고 있다.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의 '금표비(禁標碑)'에는 '동서로 3백척, 남북으로 4백9십척 안은 임금이 계신 곳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을 금한다(東西三百尺, 南北四百九十尺 此後泥生亦在當禁)'는 기록으로 미루어 단종의 고립무원(孤立無援)의 고초를 전해주는 흔적이다.

3) 관풍원으로의 이배(移排)와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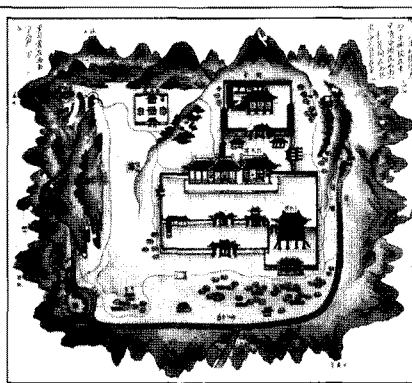
단종은 유배지 청령포 일대의 범람으로 관풍헌 객사로 옮겨 지게 되었는데 당시 관풍헌 인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읊은, '자규사(子規詞)'가 누각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月白夜蜀魂/두견새 슬피 우는 달 밝은 밤에  
 畝愁情依樓頭/수심을 안고 누각에 기대었노라.  
 爾悲我聞苦/피나게 우는 소리, 내 듣기 애처롭구나.  
 無爾聲無我愁/네 울음 없으면 내 시름도 없을 것을  
 寄語世上苦勞人/이 세상 괴로움 많은 사람들에게  
 慎莫登春三月子規樓/춘삼월 자규루엘랑 오르지 마소.

자규루는 세종 10년 당시, 군수 신원근이 창건하여 누명을 매죽루(梅竹樓)라 하였으나, 그 후 '단종이 자주 누에 올라 '자



a: 청령포, 2면



b: 읍치, 8면



c: 낙화암·민충사·금강암, 6면

그림 4. 월중도

자료: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표 3. 단종의 행적과 영월팔경 경관요소와의 관련성

플롯	역사적 사건	기록 내용	단종애사의 사진 수용	관련 장소 및 경관	이미지*
유배 (기)	유배지로 호송되는 단종	안노의 배웅으로 한양 출발	원주 → 제천 → 영월	군등치(君登峙) 명라(鳴羅)고개 방울고개 배일치(背日峙, 拜日峙) 각한치(서울고개) 옥녀봉, 선돌(立石)	
고립 (승)	단종의 유배 생활	유배지 청령포	청령포에서의 유배생활	관음송 노산대 망향탑	
			조려와의 만남	청령포 어계비원	
			엄홍도와와의 만남	청령포	
			원호와의 만남	청령포 관관정(원호의 거처)	
		이배지 관풍헌	추억한과의 만남	관풍헌, 자규루	
	꿈에 본 금몽암까지의 유람	금몽암(보덕사 부속 암자)			
혈루 (전)	단종의 죽음	자살 혹은 타살	사약을 갖고 온 금부도사 왕방연	관풍헌	
			복독이에 의한 자살		
			복독이에 의한 타살		
	동강에 띄어지는 단종의 주검	동강			
충의 (결)	단종 시신 암매장→왕릉 조성(1698년, 중종11년)	추종자	시녀·시종들의 낙화암 자결	낙화암, 금강정	
		엄홍도에 의한 암매장	엄홍도에 의한 시신 수습과 암매장	금봉연	
			정사종이 암매장을 도움		
	조려가 시신을 암매장 함	장릉			

자료: 류인순(1990)과 최명환(2006)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조선시대 유배 문화'의 '단종' 콘텐츠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단종 관련 문화콘텐츠와의 조응적 관계를 모색하였다.

규시(子規詩)』까지 지었다' 하여 자규루라 불렀다. 자규의 울음을 빌어 단종의 원통함을 읊은 <차자규제가(次子規啼歌)>는 '영포두견'에서의 애닭은 이미지어빌리티와 함께 비운의 모티브를 제공한다. 청령포의 고립된 공간 정체성은 유배지 영월에 남겨진 단종의 자취와 충신들의 절의가 깃든 화첩 월중도<sup>6)</sup>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그림 4a 참조).

영월은 산읍이라 사면이 산이어서 봄 밤, 달 질 때쯤 하여 누에 오르면 반드시 어디선가 두견의 소리가 들리는데 밤이 깊을수록 더욱 슬퍼 울고 새벽달에 차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도록 슬피운다. 관풍헌이나 자규루나 다 노산군이 밤을 새워 자규성을 들던 곳으로(이광수, 1929). 자규는 단종과 관련된 객관적 상관물이자, 단종의 분신으로 '귀축도전설'과 결부된 자규의 처절, 애원의 심상과 <단종애사>의 비극성을 겹치게 하고 있다(이기현, 1996).

단종은 관풍헌에서 2개월여를 더 보내다 죽음을 맞게 되고 이후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 <장릉지(莊陵誌)>의 기록에 따르면 강가에 버려진 채 아무도 수습하는 이가 없던 단종의 시신을 당시 영월 호장(戶長) 엄홍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수습, 자신의 집에 있던 관에 모셔 인근 동을지산에 몰래 매장하고 그 길로 잠적해 버렸다고 한다.

#### 4) 봉래산과 금강정 그리고 낙화암

봉래산은 신선사상에서 방장산과 영주산과 함께 삼신산으로 선인들이 불로불사의 선약을 만들고 있다는 산이자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실패한 매죽헌 성삼문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며 남긴 시조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고하니 봉래산 제일봉의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견곤할 제 독야청청 하리라"의 봉래산이다. '충의가'로도 불리는 이 시조의 소재는 봉래산, 낙락

장송, 백설이며(오동춘, 1973), 영월팔경의 검각창송의 겨울 이 미지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텍스트라 판단된다.

봉래산 자락, 강변 기암절벽 위의 금강정<sup>7)</sup>에서의 탁 트인 조망은 일품으로. 정자는 동으로 금강강을 마주 하고 남으로 금봉연이 자리 잡고 있다. 인근에는 단종이 죽자 궁녀 한 명과 열 명의 궁노가 몸을 던져 죽은 낙화암과 정자 뒤편으로 민총사가 자리하고 있다. 금강정은 영월팔경 중 '금강추월', '태화단풍', '계산숙무', '봉소귀범'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시점장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곳의 수려한 승경은 청백리 황희 정승과 퇴계 이항도 찬양했다고 하는데, 「금강정기」는 퇴계 이항이 지은 시<sup>8)</sup>로서 금강정의 경치를 읊은 것이다. 우암 송시열도 숙종 10년(1684년)에 이곳에 들러 「금강정기」를 남겼다. 금강정 뒤편으로는 단종의 유평과 운명을 같이 하며 낙화암에서 젊음을 산화한 시녀 99명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 민총사가 있다.

#### 5) 시신의 수습, 금봉연과 장릉

호장 엄홍도가 단종의 주검을 수습한 장소인 금봉연(金鳳淵)은 동강과 서강이 합치는 합수거리에 있으며, 강 건너 팔괴쪽의 검각산 병창 밑에 있는 푸른 소인데, 예전에는 명주실 한 꾸러기가 다 들어갈 정도로 깊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용으로 승천할 큰 이무기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으며, 원래는 하송리에서 태어난 장수가 죽자 주인을 기다리던 큰 칼(劍)이 이곳에서 소리를 내며 울었다고 하여 '검부연'이라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금봉연'이 되었다 한다.

#### 6) 단종을 모시는 원찰 보덕사

보덕사는 서울 경기지역 이외 창설된 사찰 중에서 조선시대 재임한 왕의 유일한 능침 조포수호사찰<sup>9)</sup>로서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되면서 노동사라 개칭하게 된다. 지금은 평창군에 있는 오대산 월정사에 속한 제일 거찰로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건물의 대부분이 소실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원형대로 복원되어 가고 있다. 칠성각에는 태백산 산신령이 되었다는 단종의 영정을 모시고 있으며, 보덕사 전면으로는 동을지산과 장릉이 일망무제하게 조망된다.

#### 7) 계족산과 태화산

동강과 서강이 합수되는 남한강 시발점인 팔괴나루터 부근에 위치한 계족산(鷄足山)은 지명에서와 같이 영월 변화가에서 올라다볼 때 정상 부근이 닭 발가락을 닮아 예전에는 '닭다리산'으로 불렸다. 계족산은 대동여지도와 영월읍지에는 회개산, 영월부읍지에는 계족산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한편, 태화산(太華山)은 영월의 진산으로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사이에 걸쳐 있는 해발 1,027m의 산으로 해발 900여 미터 지점에 고구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태화산성이 있다. 태화산 정상

에 서면 조망이 워낙 뛰어나 소백산 자락 각 봉우리와 월악·금수산이 한 눈에 들어오며 영월을 시가지가 조감된다.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과 공간 탐구내용을 반영하고 단종의 자취와 연계하면 표 3과 같은 서사적 플롯(plot)의 구성이 가능하다.

### 3. 시나리오

최혜실(2007: 16)이 스토리텔링을 '스토리'와 '텔링'이라는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이야기성, 현장성, 상호작용성을 그 특성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고에서 논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영월팔경이라는 문화경관 텍스트와 〈단종애사〉라는 역사 콘텐츠의 조응적 관계성 모색을 통한 장소(행위)와 경관(이야기)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의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뿐만 아니라 텔링이 텍스트 향유의 지배적 요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에피소드 등의 이야기거리를 정리, 경관 주제의 모티브로 활용하고 텔링 방식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텍스트의 구조 안에서 재맥락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몰입 경관요소를 장소, 대상 그리고 시점으로 구분한 현장 체험의 방안을 제안하며, 경관 몰입요소를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와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요소 등으로 구분하여 향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단종 관련 영월팔경의 문화 콘텐츠는 표 4와 같다. 각 경별 에피소드와 경관요소 그리고 문학 및 교육 자료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OSMU전환을 염두에 두었다. 또한, 수평적 다중 이용(Multi Use)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종의 자취와 연계된 영월팔경의 전개순서를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의 기본 전제인 연속적 이야기 효과를 부각하였다.

한편, 경관 표현적 리얼리티로의 변용을 꾀하기 위해서는 메타포적 표현효과가 불가피하다. 경관연출의 스토리텔링은 리얼리티를 표현적으로 바꾸어 보여주는 메타포적 물질 언어(materialtelling)이며, 일종의 비유적 화법이자 형식으로(오경환, 2002: 27) 이와 같은 사례로서 영포두견(冷浦杜鵑)은 이배지 관풍헌 자규루에서 감지되는 단종의 처절한 울음이며 검각치의 장릉을 향해 굽은 소나무와 실제 장릉의 소나무는 리얼리티를 강화하기 위한 에피소드이다.

### 4. 틀짜기와 텍스트화

그림 5는 영월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바탕으로 전래되는 영월팔경을 컨텍스트(context)로 하여 텍스트를 떼어내는 틀 짜기(framing)와 켜 짜기(layering)의 과정을 통해 텍스트화된 개별 경관은 각 프레임이 합쳐 모여 〈단종애사〉라는 스토리로 재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경관 주제의 도



표 4. 영월팔경 경관 테마와 관련 문화 콘텐츠

영월팔경	이야깃거리(에피소드)	텔링 순서	관련 문화콘텐츠(몰입요소)				
			경관요소			문화 자료	교육 자료
			장소	대상	시점		
계산숙무 (稽山宿霧)	· 장릉의 안산 · 닭 발가락을 닮은 '닭다리산'	8	· 배식단사 <sup>a</sup> · 창절사 <sup>b</sup> · 민총사 <sup>c</sup>	계족산	읍내 태화산	· 금계포관형의 명당	
금강추월 (錦江秋月)	· 단종을 모시던 시녀·시종이 목숨을 던진 절벽 '낙화암' · 영월 부사 신광수의 수청을 거절하고 낙화암에서 투신한 영월기생 고경준의 순절	5	· 낙화암 · 민총사	금강강(동강)	금강정	· 이황의 금강정기 · 송시열의 금강정기 · 월중도 (6면: 금강정 등)	· 충신 불사이군의 정신
봉소귀범 (鳳沼歸帆)	· 단종 시신의 수습 장소 · 승천할 큰 나무가 살고 있다는 전설 · 봉소에서 한양(특섬)을 오가는 범선	6	· 동·서강 합수처	금봉연	봉소 근방, 금강정	· 민속놀이 '봉소뚝배놀이'의 발상지	
보덕모종 (報德暮鐘)	· 조선시대 재입한 왕의 유일한 능침 조포수호사찰 · 해방 전 일인에 의해 공출된 범종 · 동을지산과 장릉의 조망	7	· 보덕사 해우소 (문화재 자료) · 느티나무 (보호수)	보덕사	보덕사 읍내	· 태백산신이 된 단종과 추익한의 혼(영정)을 모신 칠성각	· 단묘재본부시유지 · 금표비 · 장릉의 원찰 · 일본인의 만행
영포두견 (冷浦杜鵑)	· 천연기념물 349호 국내 최고 수고의 소나무 관음송의 유래 · 의금부도사 왕방년의 행적과 시조 · 자규의 울음을 빌어 단종의 원 통함을 읊은 <차자규제가(次子規啼歌)> · 관풍헌 자규루와 단종의 자규사	2	· 단종어소 · 노산대 · 관음송 · 당향탑 · 금표비 · 장릉 · 관풍헌 · 자규루	청령포(서강) 관음송(觀音松) 과 송림	청령포, 서강	· 월중도 (2면: 청령포)	· 왕방년의 시조 · 자규사
봉래채운 (蓬萊彩雲)	· 사육신 성삼문의 절개와 지조	3		봉래산	읍내, 금강정	· 성삼문이 처형장으로 끌려 가며 남긴 시조(충의가)	· 충군사상의 고취
태화단풍 (泰華丹楓)	· 10월 단종의 죽음 · 계족산에서 바라본 태화산	4		태화산	계족산 읍내		
검각창송 (劍閣蒼松)	· 제천에서 영월 땅으로 들 때 관문 구실을 하며 소뿔에 맘이 날 정도로 험하다는 검각산의 각한치의 큰 길 ·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회환과 비운의 고개 · 장릉을 향해 굽은 적송	1	· 검각산 각한치	각한치		· 대동여지도 표기	

<sup>a</sup>: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중친, 충신, 환관, 궁녀 등 268명을 신분과 공적별로 구분하여 위패를 모신 곳

<sup>b</sup>: 사육신과 엄홍도의 위패를 모신 곳

<sup>c</sup>: 단종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차형 당한 궁녀와 무녀들의 위패를 모신 곳

출과정이 프레임이 되며 <단종애사>의 전개흐름에 맞추어 시점 및 장소를 켜 짜기하고 경관 시퀀스(sequence)를 유도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월팔경 경관 테마와 관련 문화 콘텐츠의 정리과정을 거쳐 그림 6과 같은 '영월팔경-단종애사'의 관련성을 전제로 각 경의 경관주제(Landscape theme)를 설정하고 이야기 순서에 의한 체험 장소 또는 시점을 제시하였다.

그림 7은 영월군 위성사진 위에 영월팔경 각 텍스트 이외의 관풍헌과 장릉을 이입시킨 결과로 검각산, 청령포, 금강정 그리고

금봉연은 서강과 남강 그리고 남한강 합수점 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장릉-관풍헌을 조망 주축으로 하여 검각산-봉래산-계족산-태화산이 외경(外境)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관풍헌은 태화산과 계족산 그리고 봉래산으로의 조망이 매우 유리한 시점이자 장소이고, 장릉 또한, 안산 계족산의 조망점이며 텔링된 스토리 <단종애사>의 이야기의 종점이다. 따라서 청령포-관풍헌-금강정-보덕사는 <단종애사>를 텔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자 경관이며 외경요소인 태화산, 계족산, 검각산, 봉래산 그리고 금봉연을 차경할 수 있는 시점장으로서의 켜 짜기 중심



그림 5. 스토리텔링을 위한 프레임과 레이어링: 월중도 중 자규루도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회화자료, 연구자 제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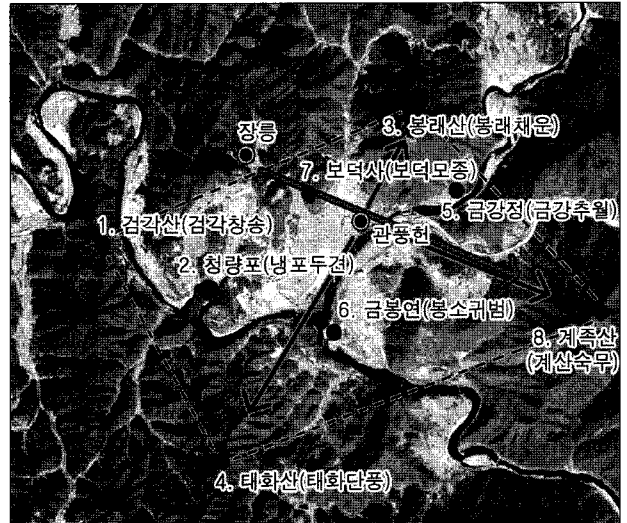


그림 7. <단중애사>와 관련한 영월팔경의 스토리텔링 전개 순서  
 바탕지도자료: 콩나물

대상이며 이는 영월팔경의 경관체험과 <단중애사>의 역사체험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의 접점이자 문화 콘텐츠의 핵심 요소이다.

5. 스토리텔링 리터러시(literacy)

그림 8은 「영월팔경-단중애사」 스토리텔링의 미시 콘텐츠를 역사, 문화 그리고 경관이라는 테마로 구분한 관련 문화 콘텐츠 연계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이외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요소는 결국 문화경관 영월팔경의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개별적 특성과 통합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최혜수 등(2006)이 단중문화축제의 참여 동기와 축제 이미지의 관계 분석을 통해 제시된 시사점에서도 이와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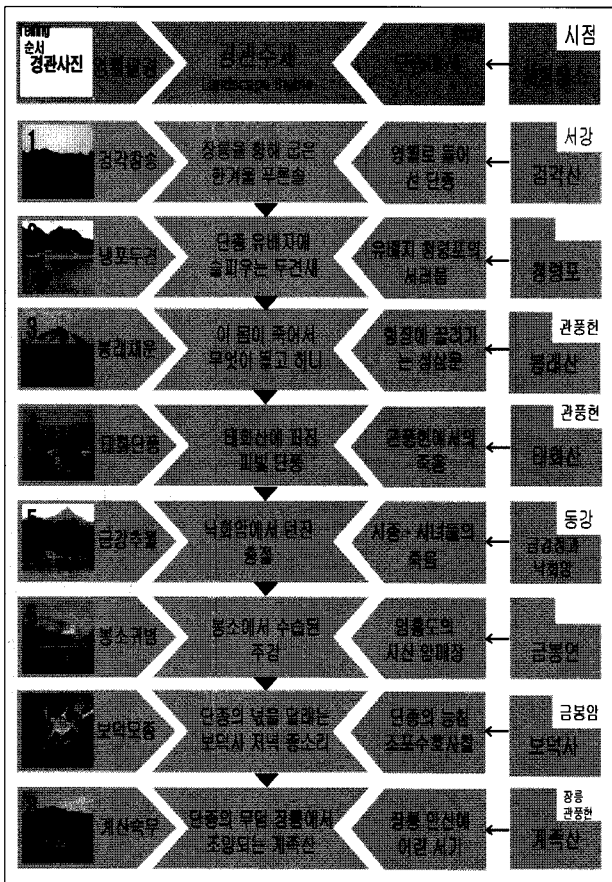


그림 6. 경관 주제의 설정과 체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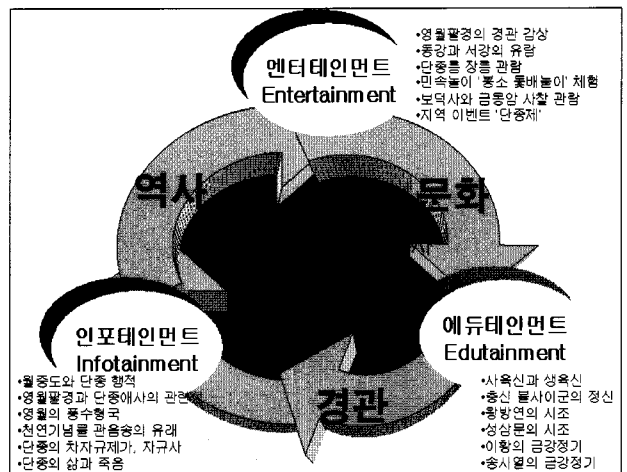


그림 8. 영월팔경 문화콘텐츠상의 에듀테인먼트

은 인식의 필요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단종문화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의 주된 동기 및 인식도는 축제의 특이성과 전통성이지만 프로그램이나 축제 이미지 및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볼 때, 단종 관련 경관 이미지 특성을 효과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경관 스토리텔링 구현전략은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예상된 경관 이미지 체험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전래 영월팔경에 대한 향토사적 탐구나 의미에 대한 재조명작업 없이 단순히 지명도 부족과 외적 관광자원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최근 지정된 신영월십경 급조에 대한 부정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영월의 관광문화가 대부분 단종과 관련되어 있다는 역사적 사실에 착안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존에 익히 알려진 단종에 대한 슬픈 역사와 유배지 영월의 문화자원이 갖는 지명도 등의 후광효과를 통해 미개발 관광콘텐츠 영월팔경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고, 문화경관 영월팔경의 이야기 전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관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문화경관 등 관광대상을 체험주체에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은 경관자원에 대한 안내자의 설명이나 해설을 의미하며, 체험 주체에게 유인 역할을 하여 체험자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관광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관광 콘텐츠의 개발은 누구나 공감 가능한 보편적 소재이어야 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의미와 감동이 있는 소재 발굴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월팔경이라는 문화경관을 <단종애사>라는 역사적 사실과 합치시키기 위한 시각화 방법과 이야기의 확장과 연계를 통한 현장감 강화와 관련 문화 콘텐츠의 연계에 주력하였다. 본 고에서 논자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영월팔경이라는 문화경관 텍스트와 <단종애사>라는 역사 콘텐츠의 조응적 관계성 모색을 통한 장소와 역사적 현장 경관의 동일성을 통한 의미와 이야기 전달이다. 이 과정에서 영월의 자연문화경관을 공간적 텍스트화하기 위한 틀 짜기(framing)와 켜 짜기(layering)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뿐만 아니라 텔링이 텍스트 향유의 지배적 요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에피소드 등의 이야기거리를 탐색하고 경관 주제의 모티브로 발굴하고자 하였다. 또한, 텔링 방식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텍스트의 구조 안에서 재맥락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 입 경관요소를 장소, 대상 그리고 시점으로 구분하여 현장화하였다. 또한, 경관 몰입요소를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와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요소 등의 미시 콘텐츠를 제시함으로써 '영월팔경-단종애사'의 서사적 경관의 연속체험에 따른

이야기성, 현장 장소성 그리고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향유를 위한 상호작용성을 염두에 둔 영월팔경의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토리텔링 방안이 실제 영월의 관광 대안으로 받아들여져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월팔경이라는 원천 콘텐츠의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후 경관연출의 리얼리티를 역동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시점의 설정과 경관 루트 연계방안 그리고 해설 시나리오가 갖추어져야 하며, 영월의 자연 및 풍수적 관점에서의 형국 인식과 단종 관련 문화와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경관해설가 또는 자원봉사자의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제시한 미시 콘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 개발, 추가 발굴하여 이를 소재로 한 인터넷과 디지털 상용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주 1. 후광효과(halo effect)란 원래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일부분의 특성에 주목하여 전체 평가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영향을 일컫는 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단종의 왕위 박탈과 영월에서의 유배생활과 죽음: 단종애사(A)」의 이야기를 「영월팔경(B)」이라는 문화경관 콘텐츠와 결부시킴으로써 익히 알려진 A의 영향력을 B와 연결, 파급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의 관계적 특성을 의미한다.
- 주 2. 신영월십경은 2007년 10월 23일 영월군 군정심의회위원회가 선정 발표한 것으로 동강(어라연), 한반도지형(선암마을), 김삿갓계곡, 별마로천 문대, 선돌, 고씨굴을 비롯하여 장릉, 청령포, 법흥사, 요선정(요선암)으로 이루어졌다.
- 주 3. 이 때 선정된 대한팔경은 강원도 금강산 일만일천봉, 제주도 한라산, 경주 석굴암 일출, 부산 해운대 보름달, 백두산 천지, 압록강 뱃목, 함경도 개마고원 서부의 부전고원, 평안도 평양 등이다.
- 주 4. 미국의 영어교사위원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에서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란 음성(voice)과 행위(gesture)를 통해 청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이야기를 하는 화자와 이야기를 듣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청자 간의 인터랙티브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권영운, 2003).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역사적,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가미하고 이야기를 창조하여 각 특성에 알맞은 형태로 이야기를 만든 것을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그 내용에 알맞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내용과 표현 방법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전명숙, 2007).
- 주 5. 관문을 하직하니 공명이 부운이라  
이 몸이 할 일 없어 영월 팔경 구경할 제  
稽山宿霧 바라보니 안개구름 봉우리에  
산 모습 습바꼭질 이도 또한 絶景이라  
예라 좋구나 宿霧여/(이하 후렴 생략)  
洛花岩 밑 錦江秋月 端宗侍女 님에 안겨  
물길 따라 춤을 추며 詩興이 절로 난다  
報德寺의 인경소리 報德暮鐘이로구나  
종 소리에 찾아드니 極樂寶灘 예로구나  
蓬萊彩雲 嶺 기슭에 휘 감돌아  
千變萬花 슬기롭다 이런 경치 어디 있다  
鳳沼歸帆 그 경치는 錦鳳淵의 뚝단 저 배  
山木絶勝 좋거니와 옛노래가 좋을시구  
冷浦杜鵑 봄 경치는 當貴春花 붉었구나  
登山臨水 그 누구나 임 생각이 그리워라  
金風이 소슬한데 泰華丹楓 좋을시구

竹杖망해 단포자로 소풍놀이 하오리다  
 에라 종구나 丹楓이여/  
 白雪이 휘날릴 제 劍閣蒼松 좋은 景致  
 四時長天 푸른빛은 凌霜固節 분명코나  
 에라종구나 蒼松이여

- 주 6. 유배지 영월에 남겨진 단종의 자취와 충신들의 절의가 깃든 장소를 8폭의 그림으로 제작한 화첩이다. 제1면은 단종의 왕릉인 장릉을 산도(山圖)의 형식으로 그린 것이고, 제2면은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를 과감한 구도로 묘사한 일종의 실경산수화이다. 제3면은 영월 객사의 관풍헌을 계화(界畵) 형식으로 그렸으며, 제4면은 관풍헌 동남쪽에 위치한 자규루를 중앙에 그렸다. 제5면은 단종에 대해 절의를 지키며 숨진 사육신을 배향한 사당인 창절사를 가운데 배치하였고, 제6면은 단종의 시녀와 시종들이 순절한 낙화암을 산수화 형식으로 그렸다. 제7면은 영월읍 치소를 회화식 지도의 형식으로 그렸으며, 제8면은 영월 일대를 그린 지도이다. 전체적으로 그림의 화력이 높아서 어림용으로 추정되며 제작시기는 <동월도> 등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대략 19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며, 2007년 12월 보물 제1536호로 지정되었다.
- 주 7. 강원도 문화재자료 24호로 세종 10년(1428년) 군수 金福恒이 창건하였다고 하나 군수 李子三이 절벽 아래로 흐르는 금강강(錦障江)의 아름다움에 반해 자비를 들어 정자를 짓고 금강정이라고 했다고도 한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양식 건물로 바닥을 마루로 깔았고, 처마는 겹처마에 팔작지붕이고 부재의 끝 부분에만 여러 무늬를 놓아 갖가지 색으로 그린 모로단청을 하였다.
- 주 8. 錦江亭記 -李滉-  
 鶻啼山裂豈窮年/두견이 울어 산을 찢어내니 어느 해에 그치려나?  
 蜀水名同非偶然/축과 강 이름 같음도 우연이 아니어라.  
 明滅晚迎海旭/달 빛 꺼져 가는 새벽 서가래에 아침 해 떠오르고,  
 飄蕭晚掃秋烟/나부끼는 대 숲에 저녁의 가을 연기 사라진다.  
 碧潭楓動魚游錦/맑은 못에 단풍 흔들리니 물고기 비단에서 헤엄치듯  
 靑壁雲生鶴踏巖/하늘에 구름이니 흰 학이 양탄자를 밟는 듯  
 更約道人鐵笛/다시 도인과 쇠피리 가져다가  
 爲來吹破老龍眼/쇠 피리 불어 늙은 용안을 뜨게 하자 약속하네.  
 상기 시는 퇴계 이황이 안동에서 춘천으로 가던 중 이곳에 들러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퇴계는 단종의 비극적 삶을 두견이의 심정으로 감정이입하면서 시의 서두를 열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예사롭지 않아 산을 찢어내고 있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그 두견이와 연결된 춘나라의 금강강(錦障江)의 이름과 같다고 하여, 단종의 애처로운 역사적 사실을 중국의 역사와 닮은꼴임을 드러내어 그 슬픔의 강도를 높였다(강원도민일보, 2002).
- 주 10. 그 동안 통설로 알려져 왔던 신라 문무왕 8년(686년) 의상조사에 의한 보덕사 창건 년대는 홍성익(2005)의 연구에 의해 새로운 견해가 알려지고 있다. 즉 <관동지>의 기록을 결정적 자료로 하여 금몽암이 1660년 중건되었고, 보덕사는 이후 병오년(1666년) 영월부사를 지낸 윤순거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매우 신빙성 있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보덕사 창건 이후 노산군 묘가 장릉으로 봉해진 후, 조포수호사찰이 되었다는 견해이다.

## 인용문헌

1. 강원도민일보(2002) 곧은 솔숲·비단 폰 동강에 반한다. 2002년 8월 27일자.
2. 권영운(2003) 디지털 스토리텔링 특성의 광고 적용 가능성. 영산대학교 영산논총 11: 383-402.
3. 김강산(2006) 태백산신이 된 단종. 강원민속학 20: 361-385.
4. 김병하, 김연갑(1996) 정선아리랑. 범우문고, p.282.
5. 김의숙(1997) 단종 신앙과 제의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2: 133-170.
6. 김종하, 배현미(2006) 현대팔경의 선정특성에 따른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1(2): 179-189.
7. 류인순(1990) 강원지방 인물전설 연구. 江原文化研究 10: 56-65.
8. 박기수(2007)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의 생산적 논의를 위한 네가지 접근법. 한국언어문화 32: 5-26.
9. 안장리(2005) 지역경관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토대 구축. 열상고전 연구 21: 145-171.
10. 오경환(2002) 조경공간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스토리텔링방법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오동춘(1973) 성삼문의 사상연구: 충의가 및 수양한탄가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6: 76-109.
12. 유동환(2006) 불교문화유산의 디지털콘텐츠화 현황과 전략 연구. 동국대학교 전자불전 8: 71-105.
13. 이광수(1992) 단종애사. 이광수전집 4: 483.
14. 이기현(1996) 석복 신광수 문학 연구. 도서출판 보고서, pp.218-222.
15. 이윤선(2005) 진도아리랑의 기원 스토리텔링과 문화 마케팅. 목포대학교 도서문화 23: 239-271.
16. 이정재(2003) 단종 복위와 무녀 충신 연구. 한국민속학 38: 387-432.
17. 이창식(2002) 영월민요의 정체성과 전승방안. 한국민요학 10: 209-239.
18. 전명숙(2007)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논문집. VII-C: 777-780.
19. 전중환(2006) 지역 문화의 해석에 있어서 경관연구의 함의. 증원문화논총 10: 65-87.
20. 정용수(2006) 밀양의 누정자료 조사연구와 그 콘텐츠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당논총 36: 209-238.
21. 최명환(2006) 단종실화의 전승양상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2. 최혜수, 조문식, 하경희(2006). 단종문화축제의 참여 동기와 축제 이미지의 관계 연구. Tourism Research 22: 165-187.
23. 최혜실(2004) 문학작품의 테마파크화 과정 연구: '소나기마을'과 '만해마을'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32(4): 285-305.
24. 최혜실(2006)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말한다. 삼성경제연구소: p.105.
25. 표용태(2006) 영월지역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방안 연구.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2: 217-243.
26. 한승욱(2001) 이광수 역사소설 <단종애사> 연구. 한중문과학연구 6: 468-487.
27. 홍성익(2005) 보덕사 창건연대에 관한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10: 93-111.
28. [http://culturecontent.com/service2006/content\\_detail/image\\_detail.as..](http://culturecontent.com/service2006/content_detail/image_detail.as..)
29. <http://land.culturecontent.com>
30. [http://yeongwol.kccf.or.kr/home/main/history.php?conf\\_kccf\\_add\\_r=yeongwol&menuinfo\\_code=culture&CULTURE\\_IDX=51](http://yeongwol.kccf.or.kr/home/main/history.php?conf_kccf_add_r=yeongwol&menuinfo_code=culture&CULTURE_IDX=51)
31. <http://ywe.yw.go.kr/tour/index.htm>
32. <http://ywtour.com/kor/CMSView.php?pid=355>
33. [hyoo@kwnews.co.kr](http://hyoo@kwnews.co.kr)

원 고 접 수 일: 2008년 5월 7일  
 심 사 일: 2008년 6월 12일  
 계 재 학 정 일: 2008년 6월 17일  
 3인익명 심사필